

##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의 기독교세계관 실태와 세례 유·무와 신앙경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정 희 영\*  
권 태 경\*\*

### 논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교회 고등학생의 기독교세계관 실태와 세례 유·무와 신앙경력과의 관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세계관에 대한 현 주소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앞으로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의 기독교 세계관 확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문제는 첫째,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 세계관은 어떠한가? 둘째,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세계관과 세례의 유·무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세계관과 신앙경력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등이다.

본 연구의 도구는 설문지로서 5명의 학자들의 기독교세계관의 기본 틀을 비교 분석한 것에 근거하여 기독교세계관에 대한 6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23문항과 일반적인 문항 6문항으로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대상자는 805명이며 자료 분석은 SPSS 12.0을 사용하여 빈도 분석과 t-test, 그리고 one-way ANOVA로 통계처리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 세계관은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세계관은 세례의 유·무와 관계가 없다. 셋째,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세계관은 신앙경력과 관계가 없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원론적인 삶의 방식을 위해 창조의 계속성에 대한 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교리에 치우친 이론적 지식이 아닌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응답자들이 진화론과 포스트모던 사상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고려한 교육이 요구된다. 넷째, 세례 전·후의 교육이 강조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일반 교육과 세상의 특징을 뛰어 넘는 영향력 있는 교회교육이 필요하다.

주제어: 기독교세계관, 이원론, 세례, 포스트모던사상

---

\* 총신대학교수

\*\* 총신대학교수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세계관이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람마다 이 세계의 근본적 구성에 대해 갖고 있는 하나의 관점을 말하며, 일관적이든 비일관적이든 혹은 부분적으로 옳거나 아니면 전적으로 틀릴 수도 있는 일련의 전제(presupposition)들이다(Sire, 1997: 20).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계관은 인식의 틀이며 사물을 인지하는 방식”(Walsh & Middleton, 1996: 18) 혹은 사물에 대한 기본적 신념의 틀(Wolters, 1992: 13)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세계관이 세계(역사)에 대한 인식 또는 판단의 기본 틀이라는 점에서 안경 혹은 콘택트렌즈에 비유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세계관이란 대상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포괄적인 하나의 구조(framework)와 관점(perspective), 혹은 신념체계(belief system)라고 할 수 있다. 이 신념체계(세계관)에 따라 가치관이 변하게 마련이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는 “만약 우리가 어떤 사회에 대하여 그 사회를 주로 형성해 나가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깊이 연구해 보면, 우리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바로 그 요인임을 발견하게 된다”(Walsh & Middleton, 1996: 9)고 언급하고 있듯이, 세계관은 한 시대의 사회를 형성하며 이것은 다시 그 사회의 문화를 만들어 낸다. 이 세계관은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 왔고 인간은 자신들이 가진 세계관에 의해 사회를 만들어 가듯이 또한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 오늘날의 문화는 포스트모더니즘<sup>1)</sup>에

---

1) 포스트모더니즘은 20세기 말엽의 시대적 정신을 의미하는 사회적, 문화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과 성격을 규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래서 Steven Best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본성을 ‘구성되고 있는 그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다: 월터 카우프만은 다원성과 상대성, 그리고 비결정성, Hassan은 비결정성, 파편화, 자아의 분산, 비 제시성과 비 재현성, 잡종화, 그리고 아이러니 등으로 나누었으며, 김옥동은 탈중심화, 행위와 참여의 중시, 임의성과 우연성, 유희성, 탈장르화, 그리고 자기 반영성 등을, 김성수는 보편적 진리의 부인, 해체주의, 그리고 다양성 등을 말하고 있다(정희영, 2000: 88-89). 신국원(1999: 105-133)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미지들에 대해 다중문화, 정보화 사회와 후기 산업사회, 사이버세계와 시뮬레이션, 자연환경의식의 변화, 뉴에이지와 신과학운동, 다원주의와 탈중심, 동성애, 패미니즘, 대중문화의 시대, 시대정신의 해체 등으로 말하고 있다. 데이비드 노벨(David A. Noebel)은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든 것의 이론을 만드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으며 오직 다른 것들보다 좀 더 현실적

의해 영향을 받으며 물질만능주의, 쾌락주의 등에 의해 결정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이러한 특징에 의해 영향을 받고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은 과거의 가치관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가치관의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특별히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상대적 가치를 인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은 가치관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현대 사회의 세속화와 과학주의는 기독교 세계관 정립과 역사이해에 하나의 도전이 되고 있다(권태경, 2001: 24). 심지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문화적인 역사 속에서 충만하게 드러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Walsh & Middleton, 1996: 114).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에게 바른 세계관의 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별히 아직 자아정체감이 완성되기 이전이며 현대 사회의 특징인 매스미디어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어 이미지 세대(Image Generation)<sup>2)</sup>라고 불리는 기독교 고등학생들의 경우 가치관의 혼란을 극복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 통신망의 빠른 전파로 인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어느 세대보다도 미디어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미디어를 통한 정보사회의 특징은 거리의 소멸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과 개인의 사회에서 형성될 수도 있고 실험하는 이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도 있으며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넘어 모든 지구를 하나의 접근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이승구, 2004: 110).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청소년들이 미디어의 영향을 받아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동시에 생산자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매스미디어 자체가 지닌 상업성과 획일성에 의해 물질주의적이고 개인주의화 되는 경향을 지니게 되었다(이윤주, 2007: 4). 미디어의 청소년에 대한 영향은 미디어를 통한 청소년들의 사회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청소년들의 사회화는 가정이나 학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디어를 ‘제 3의 부모’라고 부르고 있다(권주만, 2006: 3). 이처럼 청소년들이 미디어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 이유는 이들의 주당 TV 시청시간이 18.8

---

이고 상대적인 지식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세계관이 없는 세계관’으로서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하고 있다(2006: 27).

2)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 세대는 TV나 영화를 보면서 이미지를 경험하며 자란 초기 이미지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 세상에 살고 사이버 문화를 선도하는 포스트 이미지 세대(Post Image Generation)로서 이미지를 많이 이용하는 세대를 의미한다.

시간으로 일주일에 하루는 잠자는 시간 외에 TV 앞에서 시간을 보내며, 청소년의 특성 상 사회적 환경에 자아를 적용할 뿐만 아니라 자아에게 환경을 끊임없이 적용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세계와 실제 일어나는 사회 구조를 구별하지 못하며 미디어의 상업주의에 빠져들어 건전한 가치관의 성숙을 기대하기 어렵다(정숙자, 2001: 2). 또한 미디어(사이버공간)는 인간의 타락한 욕구는 반영하되 절제와 도덕적 판단은 개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는 이를 제어할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윤완철, 2004: 73). 대중문화(포스트모더니즘)를 포함한 미디어(사이버공간)의 지대한 영향력 아래 있는 교회의 청소년들 역시 대중문화와 판이하게 다른 기독교 세계관을 확립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회 청소년들의 기독교 세계관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세계관 실태 조사를 통해 현재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세계관에 대한 현 주소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앞으로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세계관 확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세례의 유·무와 신앙경력과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세계관과 세례의 유·무와 신앙경력과의 관계를 연구하려고 하는 이유는 세례여부와 신앙연수가 신앙의 성숙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연구결과 밝혀졌으며(박형룡, 2004; 한경희, 2002; 배수정, 2006), 이러한 결과는 세례여부와 신앙경력이 기독교세계관과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례와 신앙경력이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세계관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세계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 세계관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세계관과 세례 유·무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세계관과 신앙 경력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2. 선행연구

우리나라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선행연구는 최근 10년간의 연구를 고찰한 결과,

기독교 세계관을 토대로 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와 현대 사회의 사상과 조류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 고찰, 그리고 부모, 학생 등 기독교인의 기독교 세계관 조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기독교세계관을 토대로 한 교육과정 개발연구로는 유아교육과정, 미디어, 초등 경제·사회, 국제이해, 미술, 도덕, 과학, 세계사, 가족상담, 사이버 윤리교육, 낙태관련 교재, 양성평등의식, 생물관련, 영어과 협동학습, 대안교육, 인성교육 등과 관련된 교육과정개발 등이 있다(김남희, 2010; 문순애, 2010; 이경환, 2010; 임지현, 2010; 남신아, 2009; 김중훈, 2009; 안효정, 2009; 오정화, 2009; 임은순, 2009; 최행선, 2009; 함승애, 2009; 나희철, 2008; 윤동학, 2008; 신영란, 2008; 정병윤, 2008; 제현민, 2008; 김기웅, 2008; 임황, 2007; 서선옥, 2006; 조신일, 2005; 신동호, 2001).

현대 사회의 사상과 조류 속에서 기독교세계관의 고찰에 대한 연구로서는 다원주의, 생명윤리, 한국 현대사, 직업가치관, 기독교사 운동, 크리스마스, 전자게임, 개혁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율동주 시 등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다(이상환, 2009; 김성자, 2008; 박원미, 2008; 오석연, 2007; 이승후, 2006; 박예자, 2005; 신현덕, 2004; 한진선, 2004; 최정훈, 2003; 박재현, 2001).

부모와 학생의 기독교인 기독교세계관 조사로는 기독교 부모들의 세계관 인식, 초등학교 6학년생의 직업관, 고등학생의 기독교세계관 실태조사 등이 있다(김명지, 2008; 이상수, 2008; 성은실, 2007; 오광석, 2004; 한경희, 2002; 정기옥, 2002).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들이 교재개발이나 교육과정개발 혹은 현대 사회의 사상과 조류 속에서 기독교세계관에 대한 고찰에 관한 것들이다. 위의 선행연구 가운데 고등학생의 기독교세계관 조사에 관련된 연구로는 박남애(1993), 정기옥(2002), 성은실(2008)의 연구가 있다. 성은실의 연구는 '교회 청소년의 기독교세계관 교육 연구'로 경남과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로서 연구 대상이 272명이었다. 이 연구는 기독교세계관 자체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기독교세계관과 관련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기독교세계관 교육 연구를 위해 설문지의 문항을 총 19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학생들이 영향을 받는 곳은 어디인가? 술, 담배, 낙태, 동거, 이혼, 자살, 제사, 컨닝, 동성애, 인간복제, 혼전성관계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교회에서 배우는 것의 내용이 달라서 고민해 본적은 있는가, 왜 고민이 생겼다고 생각하는지, 그러한 고민들 때문에 신앙생활에 혼란은 없었는지와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문항 6, 세계관이란 용어에 관련된 문항 4, 그리고 기독교세계관과 관련된 문항으로 기독교세계관이란 용어를 들어 보았는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이것을 배웠을 때의 유익은 무엇인지,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기독교세계관이란 주제를 다루었는지, 교회에서 가르쳐 준 기독교세계관의 내용은 무엇인지? 등 기독교세계관 관련 문항이 7, 기타 교회와 관련된 문항 2로 구성되어 있다. 정기옥의 연구는 ‘기독교교육을 통한 기독교세계관 실태조사’로 안산동산고등학교라고 하는 1개의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이며 대상은 239명으로 이 가운데 비기독교인과 천주교인이 포함되어 있다. 고1로 입학하였을 때의 세계관의 인식과 2년 6개월이 지난 고3 때의 기독교세계관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안산고등학교에서 기독교교육을 통해 세계관이 얼마나 기독교적으로 변화하였는지를 조사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박남애(1993)의 경우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로서 연구 대상이 256명이며 이들은 모두 합동, 고신, 통합 측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 1개를 선택하여 고등학교생들의 기독교세계관 실태를 조사한 연구이다. 세 연구 모두 대상자가 300명 미만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고 지역은 부산과 경남, 그리고 안산에 국한된 연구들이며 서울에서 이루어진 박남애 연구의 경우 합동, 고신, 통합교단의 대표적인 교회(교인 1000명 이상) 하나씩을 선택하여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성은실의 연구는 기독교세계관 자체에 관한 연구라기보다는 교회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고민과 그것의 해결점에 대한 질문, 세계관과 기독교세계관의 개념과 필요성에 관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정기옥의 연구는 교회를 다니거나 기독교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라 비기독교인이거나 천주교인 그리고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 연구는 조사 대상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천주교인 모두였거나 기독교세계관 자체에 대한 실태조사라기 보다는 기독교세계관과 관련된 내용에 관한 연구이거나 대상의 표집이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는 연구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상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교회에 다니며 보다 많은 수를 대상으로 하는 기독교세계관 자체에 관한 실태 연구가 필요하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의 고등학생 805명이다. 표집방법은 층화집락표집(stratified cluster sampling)<sup>3)</sup>을 사용하였다. 서울을 강북과 강남으로 나누어 강북에는 서대문구, 용산구, 광진구, 노원구에서 각각 한 교회씩, 그리고 강남에서는 동작구, 강서구, 영등포구, 강남구, 관악구 등에서 각각 한 교회를 선택하여 한 교회에서 100명씩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경기도에는 서울 인근을 중심으로 인천, 고양시, 안양시, 의정부시, 그리고 의왕시 등에서 각각 한 교회에 100명씩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서울 강남의 5 곳, 강북의 4 곳, 그리고 서울 인근의 5 곳에서 총 14 교회에 각각 100명씩을 대상으로 1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036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잘못 표기된 49부와 대학생으로 표기된 182부를 제하여 총 805부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배경은 <표1>과 같다.

<표1> 우리나라 청소년 기독교세계관 조사를 위한 일반적인 배경

		N(%)
	구분	빈도(%)
학년	고등학교 1	361(44.8)
	고등학교 2	270(33.5)
	고등학교 3	174(21.6)
	합계	805(100)
성별	남자	385(47.8)
	여자	419(52.0)
	결측값	1( .1)
	합계	805(100)

3) 층화집락표집(stratified cluster sampling)은 개인별 지역 분포가 광범위한 경우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집락 또는 집단이나 행정구역을 무작위로 선정한 다음 여기에서 일정한 수의 연구 대상을 표본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전국의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할 경우 전국의 교육구에서 무선적으로 일정한 개 수의 교육구를 선출하고 그 추출된 교육구에 해당되는 초등학교에서 다시 일정한 수의 초등학교 교사들을 필요한 만큼 무선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다(김병선·이윤옥·김청송, 2000: 106).

	구분	빈도(%)
세례 유무	예	657(81.6)
	아니오	147(18.3)
	결측값	1( .1)
	합계	805(100)
신앙 경력	유효 1-3년	140(17.4)
	3-5년	67(8.3)
	5-10년	52(6.5)
	10년이상	54(6.7)
	모태신앙	482(59.9)
	결측값	10(1.2)
	합계	805(100)
교회 크기	100명이하	19(2.4)
	100-300명	31(3.9)
	300-500명	13(1.6)
	500-1000명	53(6.6)
	1000명이상	688(85.5)
	결측값	1( .1)
	합계	805(100)
교회 교단	장로교	729(90.6)
	순복음	14(1.7)
	감리교	9(1.1)
	침례교	4( .5)
	성결교	6( .7)
	기타	42(5.2)
	결측값	1( .1)
합계	805(100)	

##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세계관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이다. 설문지의 문항을 구성하기 위하여 먼저 월터스(Wolters), 월쉬와 미들톤(Walsh & Middleton), 사이어(Sire), 홈즈(Holmes), 이승구, 그리고 양성만 등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서술한 학자들의 기독교세계관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았다. 월터스는 기독교세계관을 창조와 타락, 구속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하나님의 창조, 우주의 본질, 인간의 본성, 죄와 악의 근원, 도덕적 능력, 인간의 죽음, 예수를 통한 구원의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Wolters, 1992: 25-96). 미들톤과 브라이언 역시 기독교세계관을 창조, 타락, 구속으로 설명하고 있으며(Walsh & Middleton, 1996: 49-112), 궁극적 실재의 유무, 우주의 본질, 인간의 본성과 사명, 악의 이해, 인간의 죽음, 구원 등을 다루고 있다. 사이어는 기독교세계관을 다음과 같이 7가지 질문으로 서술하고 있다(Sire, 1997: 22-23). 최고의 실재는 무엇인가?,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도덕의 기초는 무엇인가?, 인간의 죽음은?, 인간 역사의 의미는?, 그리고 종말과 재림 등을 기독교세계관의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홉즈는 하나님과 창조, 인간(관계, 책임적 존재로서의), 진리와 지식, 유신론적 가치의 신론근거, 사회와 역사 등으로 기독교세계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Holmes, 1991: 85-284). 이승구는 기독교세계관을 창조, 타락과 구속의 틀 안에서 중생과 중생자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창조와 그 상태의 변화, 기독교적 진리, 기독교 가치 이해와 실천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이승구, 2003: 33-235). 양승훈 역시 기독교세계관을 창조, 타락, 구속의 틀에서 인간관, 사망관, 도덕관, 역사관, 과학관, 국가관, 학문관, 결혼관, 가정관, 지식관, 직업관 등으로 매우 세부적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1990). 또한 위의 학자들 모두 구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을 다루면서 삶에서 신앙의 표현을 강조하고 있다(Walsh & Middleton, 1996: 106-107; Wolters, 1992: 84-87; Sire, 1997: 51-54; Holmes, 1991: 285-320; 이승구, 2003: 199-225). 이상에서 설명되어진 기독교세계관의 기본적인 내용은 창조, 타락, 구속, 인식론, 가치론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양승훈의 경우 다른 학자들과 다르게 세부적으로 기독교세계관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외하기로 한다.

〈표2〉 기독교세계관 구조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

	미들톤, 브라이언	월터스	사이어	홉즈	이승구	
창 조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	4
			최고의 실재		하나님 나라 (궁극적 실재)	2
	우주의 본성	우주의 본질	세계의 본질			3

	미들톤, 브라이언	월터스	사이어	흠즈	이승구	
타 락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성	인간관	인간창조(관)	5
	인간의 사명		인간역사의 의미	관계, 책임적 존재로서의 인간	인간 상태의 변화	4
	악의 이해	죄와 악의 근원				2
	인간의 사망	인간의 사망	인간의 사망			3
구 속	구원	구원				2
	삶에서 신앙의 표현	삶에서 신앙의 표현	삶에서 신앙의 표현		기독교적 가치 실천	4
			종말과 재림			1
인 식 론				진리와 지식 사회와 역사	기독교적 진리	2
가 치 론		도덕적 능력	도덕의 기초	유신론적 가치의 근거	기독교적 가치 이해	4

이상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명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3이상이면 기독교세계관의 기본 내용으로 보았다. 3 이상이 나온 주제는 하나님의 창조, 우주의 본질, 인간의 본성, 인간의 사명·인간 역사의 의미·관계, 책임적 존재로서의 인간, 인간의 사망, 삶에서 신앙의 표현, 도덕적 능력·도덕의 기초·유신론적 가치의 근거·기독교적 가치 이해 등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와 우주의 본질은 하나로 묶어 창조의 시작과 의미로, 인간의 사명과 관계·책임적 존재로서의 인간, 그리고 인간 역사의 의미를 하나로 묶어 인간 역사의 의미로 하였다. 또한 도덕적 능력·도덕의 기초·유신론적 가치의 근거·기독교적 가치 이해는 하나로 묶어 도덕의 기초로 하였다. 따라서 기독교세계관의 기본적인 내용은 창조의 시작과 의미, 인간의 본질, 인간 역사의 의미, 인간의 사망, 도덕적 기초, 그리고 삶에서 신앙의 표현 등 6개의 주제가 된다. 이들 각각의 하위영역에 5, 2, 3, 4, 4, 5개의 설문지 문항을 만들어 총 23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3>과 같다.

〈표3〉 기독교세계관에 관련된 설문지 문항 구성

기독교세계관	세부내용	문항수
창조의 시작과 의미	하나님의 자존성 세상의 시작 만물의 근원 창조의 계속성 만물의 존재목적	5문항
인간의 본질	인간의 기원 자유의지	2문항
인간 역사의 의미	아담의 실제성 역사의 진행 하나님의 계획목적	3문항
인간의 사망	죽음의 이유 십자가 희생 영육의 분리 천국의 확신	4문항
도덕적 기초	도덕의 차별성 도덕의 중심기준 절대가치 필요성 죄의 결과	4문항
삶에서 신앙의 표현	예수님의 도우심 죄책감 기도응답경험 성령의 동행 소명 및 책임의식	5문항

각 문항의 응답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5점 평정척도로서 총점의 범위는 26점에서 130점까지이다. 이 척도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유아교육과 기독교철학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각 하위영역에 따른 문항의 내용 타당도를 검토하였고, 신뢰도는 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의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94이며, 척도의 각 하위영역에 대한 신뢰도는 <표4>와 같다.

〈표4〉 각 하위영역 신뢰도

영역	문항구성	문항 수	신뢰도
창조의 시작과 의미	1, 2, 3, 4, 5	5	.87
인간의 본질	6, 7	2	.63
인간 역사의 의미	8, 9, 10	3	.77
인간의 사망	11, 12, 13, 14	4	.72
도덕적 기초	15, 16, 17, 18	4	.66
삶에서 신앙의 표현	22, 23, 24, 25, 26	5	.85

###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1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t-test, One-way ANOVA로 통계 처리 하였다. 빈도분석은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 세계관(창조의 시작과 의미, 인간의 본질, 인간의 사망 시에 일어나는 일, 인간 역사의 의미, 도덕의 기초, 삶에서 신앙의 표현)에 대한 분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세계관과 세례의 유·무에 따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t-test가 실시되었다. 신앙연수와 기독교세계관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One-way ANOVA가 실시되었다.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결과 및 해석은 다음과 같다.

### 1.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의 기독교세계관 실태

#### (1) 창조의 시작과 의미

우리나라 교회 청소년의 기독교세계관 가운데 창조의 시작과 의미 인식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표5〉 창조와 시작의 의미

구분	N(%)					
	전혀 아니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하나님의 자존성	16(2.0)	42(5.2)	117(5.2)	273(33.9)	357(44.3)	805(100)
세상의 시작	7(9)	14(1.7)	65(8.1)	264(32.8)	455(56.5)	805(100)
만물의 근원	7(9)	16(2.0)	61(7.6)	246(30.6)	475(59.0)	805(100)
창조의 계속성	14(1.7)	23(2.9)	152(18.9)	285(35.4)	331(41.1)	805(100)
만물의 존재 목적	12(1.5)	18(2.2)	109(13.5)	285(35.4)	380(47.2)	804(100)

태초 전 하나님의 자존성을 묻는 질문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홀로 계셨다고 응답한 사람이 ‘그렇다(33.9%)’와 ‘매우 그렇다(44.3%)’를 포함하여 전체 78.2%이었다. 반면 ‘잘모르겠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의 대답은 전체 21.7%로 나타났다.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들(89.3%)이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하였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그렇다’가 30.6%, ‘매우 그렇다’가 59%로 전체 89.6%가 응답하였다.

창조가 태초에 있었던 일회적 사건이 아닌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331명(41.1%)의 응답자들이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했고, 285명(35.4%)의 응답자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반면 152명(18.9%)의 응답자들이 ‘잘모르겠다’고 대답했으며, 전체 37명(4.6%)의 응답자들이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지를 묻는 질문에서 665명(82.6%)의 응답자들이 ‘매우 그렇다(47.2%)’와 ‘그렇다(35.4%)’라고 대답하였다.

## (2) 인간의 본질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의 기독교세계관 가운데 인간의 본질 인식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표6〉 인간의 본질

구분	N(%)					합계
	전혀 아니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인간의 기원	13(1.6)	31(3.9)	116(14.4)	281(34.9)	364(45.2)	805(100)
자유의지	10(1.2)	13(1.6)	58(7.2)	341(42.4)	383(47.6)	805(100)

하나님께서 흠으로 인간을 만드셨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364명(45.2%)의 응답자들이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했고, 281명(34.9%)의 응답자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반면 160명(19.9%)의 응답자들이 ‘잘모르겠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가 383명(47.6%), ‘그렇다’가 341명(42.4%)으로 대답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들(90%)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3) 인간 역사의 의미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의 기독교세계관 가운데 인간 역사의 의미 인식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표7〉 인간 역사의 의미

구분	N(%)					합계
	전혀 아니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아담의 실제성	8(1.0)	18(2.2)	183(22.7)	310(38.5)	286(35.5)	805(100)
역사의 진행	17(2.1)	93(11.6)	234(29.1)	230(28.6)	231(28.7)	805(100)
하나님의 계획 목적	8(1.0)	13(1.6)	95(11.8)	315(39.1)	374(46.5)	805(100)

역사의 의미와 관련하여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임을 묻는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가 286명(35.5%), ‘그렇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310명(38.5%)로 총 596명(74.0%)이었다. 반면 ‘잘모르겠다’가 183명(22.7%), ‘아니다’가 18명 (2.2%), ‘전혀 아니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8명(1.0%)로 총 209명(25.9%)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461명(57.3%)이었다. 반면 ‘잘모르겠다’ 혹은 ‘아니다’, ‘전혀 아니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344명(42.8%)이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들(86.6%)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대답하였다.

#### (4) 인간의 사망 시 일어나는 일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의 기독교 세계관 가운데 인간의 사망 시 일어나는 일 인식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표8〉 인간의 사망 시 일어나는 일

구분	N(%)					
	전혀 아니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죽음의 이유	17(2.1)	65(8.1)	177(22.0)	303(37.6)	243(30.2)	805(100)
십자가 희생	9(1.1)	6(0.7)	62(7.7)	247(30.7)	481(59.8)	805(100)
영육의 분리	7(0.9)	10(1.2)	175(21.7)	295(36.6)	317(39.4)	805(100)
천국의확신	23(2.9)	85(10.6)	100(12.4)	245(30.4)	352(43.7)	805(100)

인간이 죽게 된 이유가 아담의 죄 때문인지를 묻는 질문에서 243명(30.2%)의 응답자들이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했고, 303명(37.6%)의 응답자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반면 259명(32.2%)의 응답자들이 ‘잘모르겠다’ 혹은 모른다고 대답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728명의 응답자(90.5%)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이 죽을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317명(39.4%)의 응답자들이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했고, 295명(36.6%)이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반면 ‘잘모르겠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가 각각 21.7%, 1.2%, 0.9%로 부정적인 응답이 23%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에 가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352명(43.7%), ‘그렇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245명(30.4%), ‘잘모르겠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100명(12.4%), ‘아니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85명(10.6%), 그리고 ‘전혀 아니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23명(2.9%)으로 나타났다.

**(5) 도덕의 기초**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의 기독교세계관 가운데 도덕의 기초의 인식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표9〉 도덕의 기초

구분	N(%)					
	전혀 아니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도덕의 차별성	17(2.1)	119(14.8)	250(31.1)	250(31.1)	169(21.0)	805(100)
도덕의 중심기준	6(.7)	31(3.9)	184(22.9)	300(37.3)	284(35.3)	805(100)
절대 가치 필요성	25(3.1)	75(9.3)	242(30.1)	293(36.4)	170(21.1)	805(100)
최의 결과	19(2.4)	93(11.6)	181(22.5)	287(35.7)	225(28.0)	805(100)

기독교와 세상의 도덕 개념이 차이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169(21%), ‘그렇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250명(31.1%)으로 전체 5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잘모르겠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250명(31.1%), ‘아니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119명(14.8%), ‘전혀 아니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17명(2.1%)로 부정적인 응답이 48%였다.

도덕의 중심과 기준이 하나님이신가를 묻는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가 284명(35.3%), ‘그렇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300명(37.3%)이었다. 반면, ‘잘모르겠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각각 184명(22.9%), 31명(3.9%), 6명(0.7%)으로 나타났다.

이 세상에 절대적 가치와 기준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가 170명(21.1%)와 ‘그렇다’가 293명(36.4%)이었다. 반면 ‘잘모르겠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242명(30.1%), ‘아니다’가 75명(9.3%), ‘전혀 아니다’가 25명(3.1%)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42.5%였다.

이혼, 물질주의, 동성애 등 현대사회의 문제들이 최의 결과인가를 묻는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225명(28.0%), ‘그렇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287명(35.7%)으로 전체 63.7%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잘모르겠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181명(22.5%), ‘아니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93명(11.6%), ‘전혀 아니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19명(2.4%)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36.5%였다.

### (6) 삶에서 신앙의 표현에 대한 실태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의 기독교세계관 가운데 삶에서 신앙의 표현의 인식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표10〉 삶에서 신앙의 표현

구분	N(%)					
	전혀 아니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예수님의 도우심	7(.9)	17(2.1)	71(8.8)	298(37.0)	412(51.2)	805(100)
죄책감	14(1.7)	26(3.2)	122(15.2)	380(47.2)	262(32.5)	805(100)
기도 응답 경험	49(6.1)	102(12.7)	215(26.7)	242(30.1)	197(24.5)	805(100)
성령의 동행	13(1.6)	31(3.9)	308(38.3)	298(37.0)	155(19.3)	805(100)
소명, 책임의식	11(1.4)	25(3.1)	221(27.5)	326(40.5)	222(27.6)	804(100)

예수님이 항상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대부분의 응답자(88.2%)들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죄책감을 느끼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들이 642명(79.7%)이었다. 반면, ‘잘모르겠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들은 전체 162명(20.1)으로 나타났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197명(24.5%), ‘그렇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242명(30.1%), ‘잘모르겠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215명(26.7%), ‘아니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102명(12.7%), ‘전혀 아니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49명(6.1%)으로 부정적인 응답자가 366명(45.5%)이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동행을 느끼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453명(56.3%)의 응답자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반면, 352명(43.8%)의 응답자들이 ‘잘모르겠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과 그 소명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222명(27.6%), ‘그렇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326명(40.5%)으로 나타났다. 반면, ‘잘모르겠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221명(27.5%), ‘아니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25명(3.1%), ‘전혀 아니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11명(1.4%)으로 부정적인 응답자가 257명(32%)이었다.

## 2.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세계관과 세례 유·무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세계관과 세례의 유·무와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표10>과 같다.

<표10>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세계관과 세례 유·무와의 관계

변인	집단	<i>N</i>	<i>M</i>	<i>SD</i>	<i>t</i>
창조의 시작과 의미	세례유	5	4.38	.166	5.238*
	세례무	5	3.82	.170	
인간의 본질	세례유	2	4.35	.078	2.736
	세례무	2	3.90	.219	
인간 역사의 의미	세례유	3	4.11	.297	2.134
	세례무	3	3.61	.272	
인간의 사망	세례유	4	4.18	.264	1.961
	세례무	4	3.82	.258	
도덕적 기초	세례유	4	3.80	.233	2.373
	세례무	4	3.48	.144	
삶에서 신앙의 표현	세례유	5	3.99	.302	2.033
	세례무	5	3.54	.395	

\* $p < .05$

기독교세계관과 세례 유·무에 따른 평균 차이검증 결과를 각 변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의 자존성, 세상의 시작, 만물의 근원, 창조의 계속성, 그리고 만물의 존재목적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창조의 시작과 의미에서 세례를 받은 집단과 세례를 받지 않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5.238, p<.05$ ).

둘째, 인간의 기원과 자유의지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인간의 본질에서 세례를 받은 집단과 세례를 받지 않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2.736, p>.05$ ).

셋째, 아담의 실제성, 역사의 진행,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목적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인간 역사의 의미에서 세례를 받은 집단과 세례를 받지 않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2.134, p>.05$ ).

넷째, 죽음의 이유, 십자가 희생, 영육의 분리, 그리고 천국의 확신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인간의 사망에서 세례를 받은 집단과 세례를 받지 않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1.961, p>.05$ ).

다섯째, 도덕의 차별성, 도덕의 중심기준, 절대가치 필요성, 그리고 죄의 결과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도덕적 기초에서 세례를 받은 집단과 세례를 받지 않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2.373, p>.05$ ).

여섯째, 예수님의 도우심, 죄책감, 기도응답경험, 성령의 동행, 그리고 소명 및 책임 의식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삶에 나타난 신앙의 표현에서 세례를 받은 집단과 세례를 받지 않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2.033, p>.05$ ).

### 3.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세계관과 신앙경력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세계관과 신앙경력과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표11>과 같다.

〈표11〉 신앙경력에 따른 기독교 세계관 비교

변인	집단	N	M	SD	F
창조의 시작과 의미	1-3년	5	4.08	.123	6.531*
	3-5년	5	4.15	.156	
	5-10년	5	3.91	.140	
	10년이상	5	4.26	.210	
	모태신앙	5	4.41	.173	
인간의 본질	1-3년	2	4.09	.177	4.017
	3-5년	2	4.15	.127	
	5-10년	2	3.99	.042	
	10년이상	2	4.28	.028	
	모태신앙	2	4.37	.085	
인간 역사의 의미	1-3년	3	3.78	.310	1.855
	3-5년	3	3.96	.290	
	5-10년	3	3.64	.277	
	10년이상	3	4.10	.123	
	모태신앙	3	4.14	.308	
인간의 사망	1-3년	4	4.00	.194	1.387
	3-5년	4	4.03	.256	
	5-10년	4	3.80	.344	
	10년이상	4	4.17	.261	
	모태신앙	4	4.20	.280	
도덕적 기초	1-3년	4	3.67	.178	2.181
	3-5년	4	3.75	.282	
	5-10년	4	3.48	.184	
	10년이상	4	3.91	.167	
	모태신앙	4	3.78	.238	
삶에서 신앙의 표현	1-3년	5	3.75	.344	1.004
	3-5년	5	3.88	.325	
	5-10년	5	3.71	.398	
	10년이상	5	4.06	.282	
	모태신앙	5	3.98	.316	

\* $p < .05$

기독교세계관과 신앙경력과의 관계를 각 변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의 자존성, 세상의 시작, 만물의 근원, 창조의 계속성, 그리고 만물의 존재목적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창조의 시작과 의미에서 신앙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6.531, p<.05$ ).

둘째, 인간의 기원과 자유의지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인간의 본질에서 신앙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4.017, p>.05$ ).

셋째, 아담의 실제성, 역사의 진행,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목적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인간 역사의 의미에서 신앙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1.855, p>.05$ ).

넷째, 죽음의 이유, 십자가 희생, 영육의 분리, 그리고 천국의 확신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인간의 사망에서 신앙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1.387, p>.05$ ).

다섯째, 도덕의 차별성, 도덕의 중심기준, 절대가치 필요성, 그리고 죄의 결과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도덕적 기초에서 신앙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81, p>.05$ ).

여섯째, 예수님의 도우심, 죄책감, 기도응답경험, 성령의 동행, 그리고 소명 및 책임 의식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삶에 나타난 신앙의 표현에서 신앙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1.004, p>.05$ ).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세계관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그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 그것을 통해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세계관 함양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기독교 고등학생을 위한 기독교세계관에 관련된 설문지의 문항을 만들고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세례의 유무와 신앙경력에 따라 기독교세계관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 1.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세계관 실태

첫째, 창조의 시작과 의미에 대한 실태는 하나님의 자존성(79%), 세상의 시작(90.3%), 만물의 근원(90.3%), 창조의 계속성(76.2%), 만물의 존재목적(84.3%) 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응답이 나왔다. 우리나라 기독교 청소년들이 창조의 시작과 의미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교회교육에서 창조에 대한 부분이 잘 교육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창조의 계속성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창조의 계속성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신론적 사고를 하게 되며(Sire, 1997: 65), 하나님께서 창조세계에 직접 개입하신다는 의식을 못하게 되며 이러한 사고는 과학은 우리가 세상을 배우는 방법이며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학문이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견해를 낳게 된다(Greene, 2000: 184). 따라서 창조의 계속성에 대한 교육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간의 본질에 대한 실태에서는 인간의 기원에 대해 80%정도가 잘 알고 있었으나 20%정도의 학생들이 그 기원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초등학교부터 진화론에 근거를 둔 교육과정에 의해 교육을 받다보니 교회에서 창조론에 대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기원을 진화론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Noebel, 2006: 102).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부분(90%)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인간의 사망 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죽음의 이유(67.8%), 십자가 희생(90.5%), 영육의 분리(76%), 천국의 확신(74.1%) 등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십자가의 희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육의 분리나 천국의 확신에는 응답자의 사분의 일 정도가 확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는 삼분의 일이 넘는 응답자가 원죄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원죄에 대한 이해는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나라 교회 교육에 문제가 있거나 교육에 있어서 죄의 문제를 가볍게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도덕의 기초에 대한 실태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도덕의 차별성(52%), 도덕의

중심기준(72.6%), 절대가치의 필요성(57.5%), 죄의 결과(53.7%) 등으로 나타났다. 도덕의 중심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자가 72.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주었다. 그 외의 도덕의 기초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 반을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앞에서 질문한 창조의 시작과 의미, 인간의 본질, 인간의 사망 시에 일어나는 일 등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상대주의를 지향하고 절대성을 부정하는 오늘날 사회의 풍조인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특성상 미디어의 영향을 받고(권주만, 2006: 19) 그 미디어가 대중문화를 포함하며, 대중문화는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이재호, 2006: 57-58; 황희성, 2004: 51-52)). 이러한 결과는 성은실(2007: 62)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이 문화에 대해 대중매체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결론과도 같은 맥락이다. 슈퍼(Schaeffer)는 기독교인들에게 도덕적 질서와 참된 가치를 위해서는 절대성이 필요하며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Noebel, 2006: 129 재인용).

다섯째, 인간 역사의 의미에 대한 실태에서 아담의 실재성(74%), 역사의 진행(57.3%), 하나님의 계획 목적(85.6%)등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나왔다. 아담의 실재성은 창조 부분에서 다루어지는 것이며 이것은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응답자의 26%가 부정적으로 답을 했다는 것은 믿음과 머리로 아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며 인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인본주의의 뿌리에 깔려 있는 진화론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회에서 성경에 대해 배우기는 하지만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은 다른 일이며 이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대체로 진화론적 사고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진화론에 대한 신념은 무신론적 신학이며 자연주의적 철학이다(Noebel, 2006: 179).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인간 존재에 대한 유의미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삶에서 신앙의 표현에 대한 실태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는 것(88.2%),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죄책감을 느끼는 것(79.7%), 기도응답경험(54.6%), 예배시 성령의 동행에 대한 느낌(56.3%), 구원받은 자로서 소명과 그것에 대한 책임의식(68.1%) 등으로 나왔다.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지 않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기도의 응답이 있는지, 예

배 시에 성령의 동행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55% 내외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교회교육(특히 장로교)이 교리에 치중하는 한편, 삶에서의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하지 않는 결과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구원받은 자로서 소명과 그것에 대한 책임의식은 그렇게 높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 2.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세계관과 세례 유·무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세례 유·무에 따라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세계관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가 표 10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존성, 세상의 시작, 만물의 근원, 창조의 계속성, 그리고 만물의 존재목적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창조의 시작과 의미에서만 세례를 받은 집단과 세례를 받지 않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5.238, p<.05$ ). 그러나 나머지 5개의 다른 항목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오지 않았다. 세례를 베풀기 전 세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고려할 때 세례를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은 세례 전 베풀어지는 교육이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모태 신앙자가 59.9%이면 이들 중 대부분이 유아세례를 받고 나중에 입교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전체 세례자가 81.6%임을 감안할 때 전체 세례자 가운데 75%가 유아세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유아세례란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 자녀가 대략 2세 미만일 경우 베풀어지는 것으로 부모가 교회의 회중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것을 서약하며 이것을 교회가 감독해야 하는 교육적 의미가 담겨있는 예식이다. 세례를 전 후로 한 교육적 중요성은 교회 역사에서 세례예비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엿볼 수 있다. 2세기 초엽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세례예비자를 위한 교리문답교육학교가 운영되고 있었으며(한철하, 1978: 58-60) 종교개혁기에는 유아세례를 받은 어린이를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해 교리문답서가 작성되었고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답이나 웨스터민스터 등의 수 많은 교리문답이 어린이의 신앙 교육을 위해 만들어졌다(정희영, 2000: 43-44). 이는 세례의 중요성과 유아세례와 그 후의 신앙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례를 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의 기독교



교세계관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면 분명 세례 베풀기 전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유아세례 시 이루어지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책임에 대한 서약과 교회의 교육적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교회가 언약의 공동체이며 언약사상과 맥을 같이 하는 세례와 이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간과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3.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세계관과 신앙경력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세례 유·무에 따라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세계관 인식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가 <표11>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존성, 세상의 시작, 만물의 근원, 창조의 계속성, 그리고 만물의 존재목적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창조의 시작과 의미에서 신앙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의 차이가 있으므로 나타났다( $F=6.531, p<.05$ ). 그러나 나머지 5개의 다른 항목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신앙경력에 따라 기독교세계관의 인식에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신앙경력이 신앙의 성숙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주장한 여러 연구 결과(박형룡, 2004; 한경희, 2002; 배수정, 2006)와 대치되는 결과이다. 즉 신앙연수가 길면 신앙도 그에 따라 성숙해야 함을 의미한다. 신앙경력이 신앙의 성숙도와 관련이 있다면 기독교세계관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신앙연수가 긴 학생의 기독교세계관 인식이 신앙연수가 짧은 학생의 인식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다. 신앙경력이 기독교세계관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교회에서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다 해도 일반 사회에서 받는 교육을 능가하지 못하거나 사회의 여러 가지 요인이 오히려 교회에서의 교육보다 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형룡(2004), 한경희(2002), 배수정(2006)의 연구에서 세례여부와 신앙연수가 신앙의 성숙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연구결과 밝혀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신앙연수와 신앙의 성숙도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이 창조의 시작과 의미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고 있

었으나 창조의 계속성에 대해서는 창조의 의미나 시작에 대한 이해보다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이원론적인 사고는 신앙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고 삶의 현장에서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 살아야 한다는 분리된 생활방식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창조의 계속성에 대한 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교사를 통해 배우는 것을 고려할 때 고등부를 담당한 사역자와 교사들이 기독교세계관에 의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신학대학원에서 교육과정 중에 기독교세계관에 관련된 과목들을 넣는 것이 필요하며 교회에서 교사들에게 기독교세계관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일반적으로 교리적인 질문에는 대부분 매우 긍정적인 응답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절반을 웃도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교회학교에서의 교육이 교리 중심적이고 삶의 적용부분이 약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리에 치우친 이론적 지식이 아닌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을 가르침으로써 기독교세계관 가운데 실천적 부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교회에서는 방학 때 마다 기독교세계관을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캠프를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는 CTC(Christian Thinking Center) 같은 기관에 보내어 훈련을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셋째, 전반적인 교리에 관한 질문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나온 반면 도덕의 기초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부분 절반을 웃도는 수준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나왔다. 이는 학생들이 교회에서 배우는 내용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응답자들이 진화론과 포스트모던 사상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고려한 교육이 요구된다. 진화론과 포스트모던사상은 기독교세계관에서 창조와 창조주 되신 절대자를 부정하므로 절대성과 상대성, 진화와 창조에 대한 분석적이고 폭넓은 교육이 요구된다. 아울러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기독교세계관의 핵심을 이루는 성경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는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교육과정 중 진화론과 창조론의 비교 연구,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과 기독교인의 삶과 같은 내용을 성경을 가르침과 동시에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

넷째, 세례 전 교육이 강화되고 그 내용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교회가 유아세례를 베풀 때 부모와의 서약이 당시의 서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자신들

에게 자녀의 신앙에 대한 교육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실제 생활에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감독해야 한다. 유아기에 인성의 80%가 형성되며 이것은 유아기 이후 청소년기의 인성 및 세계관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할 때 유아세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교육적 실천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기독교세계관이 성경의 핵심적인 사상으로부터 그 틀이 만들어졌음을 고려할 때 교회에서의 세례 전·후의 성경교육의 강화와 가정에서의 부모를 통한 신앙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고안,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부모교육을 위해 교회에서 다양한 부모 교육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을 가르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섯째, 교회에서의 고등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일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연구와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의 여러 가지 요인이 교회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교회교육의 시간이나 내용, 방법 등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 시대의 문화적·사상적 특징을 연구하고 이 특징이 성경의 사상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분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 5일제가 전면 실시된 것을 감안하여 토요교회학교를 통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인터넷을 활용한 학생들과의 영어성경공부나 영어성경 QT를 할 수 있다. 영어는 현대의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대적 요구반영과 교회교육에서 성경이해의 두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한신일, 2004: 207-208).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권주만 (2006). “청소년의 미디어 능력 향상을 위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권태경 (2001). 『기독교 세계관과 역사』. 서울: 그리스심.
- 김기웅 (2008).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초등과학 교재개발 연구: 초등4학년 식물단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동대학교.
- 김남희 (2010). “기독교 세계관적 생태윤리에 기초한 중학교 환경윤리 수업자료 개발.” 석사학위논문. 한동대 교육대학원.
- 김명지 (2008).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부모교육이 기독교 부모들의 세계관 인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김복환 (2010).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민주 시민 교육.” 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 교육대학원.
- 김병선·이윤옥·김충승 (2000). 『아동연구방법』. 서울: 양서원.
- 김성자 (2008).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의 생명 윤리 주제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한동대 교육대학원.
- 김중훈 (2009). “기독교 세계관적 교육과정 재구성 모델 개발: 초등학교 사회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동대 교육대학원.
- 나희철 (2008). “공립 초등학교에서의 낙태 문제 교육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적 재량활동 교재 개발.” 한동대 교육대학원.
- 남신아 (2009).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 미술 연구: 운보 김기창의 삶과 회화세계를 중심으로.” 경성대 교육대학원.
- 문순애 (2010).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유아교육과정: 제7차 유치원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 박남애 (1993). “교회 청소년의 세계관 조사연구: 서울지역 고등학생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 박예자 (2005).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그림책에 나타난 기독교 세계관.” 총신대 교육대학원.
- 박원미 (2008).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기독교적 세계관 연구: 김현승·박목월의 후기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강원대 교육대학원.
- 박재현 (2001). “윤동주 시에 나타난 기독교 세계관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 대학원.
- 박형룡(2004). 기독교 신앙 정도에 따른 중 고등학생의 변인별 자아개념 차이 분석.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배수정(2006). 어머니의 신앙성숙도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총신대 교육대학원.
- 서선옥 (2006). “기독교 세계관을 반영한 영어과 협동학습 지도방안: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총신대 교육대학원.
- 성은실 (2007). “교회청소년의 기독교 세계관 교육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 신국원 (1999).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IVP.
- 신동호 (2001).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현행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서술에 관

한 연구.”

- 신영란 (2008).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적 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초등 3·4학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동대 교육대학원.
- 신현덕 (2004). “전자게임 속에서의 기독교 세계관 구현가능성.” 석사학위논문. 숭실대 기독교대학원.
- 안효정 (2009).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초등사회과 국제이해교육 교재개발.” 석사학위논문. 한동대교육대학원.
- 양승훈 (1989). 『기독교세계관의 이해와 적용』. 서울: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출판부.
- 오광석 (2004). “세계관 학교를 통한 기독교적 세계관 확립과 이원론적 사고방식의 극복: 원당반석교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 오석연 (2007). “기독교세계관이 청소년 직업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상담학적 대안.” 석사학위논문. 총신대 교육대학원.
- 오정화 (2009). “중학교 1학년 도덕과 칭찬 단원 개발: 기독교 세계관을 기초로 하여.” 석사학위논문. 한동대 교육대학원.
- 윤동학 (2008). “초등학교 양성평등의식 교육의 기독교 세계관적인 교재 개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동대 교육대학원.
- 윤완철(2004). “사이버공간: 기술과 인간.” 『신앙과 학문』. 제 9권 제 2호. 73-104.
- 이경환 (2010). “배려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미디어 교육 재량활동 교재 개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한동대 교육대학원.
- 이상수 (2008). “기독교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본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직업관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동대 교육대학원.
- 이상환 (2009). “종교다원주의 사회의 기독교 세계관 교육과정 개발.” 석사학위논문. 총신대 대학원.
- 이승구 (2003). 『기독교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서울: SFC출판부.
- 이승구 (2004). “정보화사회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 『신앙과 학문』. 제 9권 제 2호. 105-135.
- 이승후 (2006).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사 운동의 평가와 전망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 교육대학원.
- 이윤주 (2007). “매스 미디어가 청소년 국가의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이재호 (2006). “포스트모던 시대의 청소년 기독교교육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신학대학원.
- 임성은 (2005).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초등학교 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 신학대 대학원.
- 임은순 (2009). “기독교 세계관 및 과학 철학적 관점을 적용한 고등학교 과학교육 자료개발.” 석사학위논문. 한동대 교육대학원.
- 임지현 (2010). “기독교 세계관을 활용한 초등 경제 단원 재구성 실행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동대 교육대학원.
- 임황 (2007).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청소년 인성교육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동대 교육대학원.
- 조신일 (2005).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대안교육의 본질과 방향.” 석사학위논문.

- 고신대 대학원.
- 정기옥 (2002). “기독교 교육을 통한 기독교 세계관 실태조사: 안산동산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정병윤 (2008). “초등학교 과학교과서에 기술된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분석과 새로운 교수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논문. 한동대 교육대학원.
- 정숙자 (2001). “국내 청소년 대상 미디어교육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 정희영 (2000). 『기독교유아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 제현민 (2008). “기독교 세계관을 반영한 사회과 논쟁수업 자료 개발.” 석사학위논문. 한동대 교육대학원.
- 하희승 (2010). “개혁교회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과정 개발 연구.” 박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 한경희 (2002). “교회학교 영유아부의 역할을 위한 기독교인 부모의 세계관.” 석사학위논문. 총신대 교육대학원.
- 한신일 (2004). “인터넷을 활용한 교회학교 교수학습모델 개발.” 『신앙과 학문』. 제 9권 제 2호. 187-215.
- 한진선 (2004). “정통개혁주의 신학에서 본 기독교 세계관 운동평가.” 석사학위논문. 안양대 신학대학원.
- 한철하 (1978). 『고대 기독교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함승애 (2009).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가족상담 모델 개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신대 대학원.
- 황성준 (2008). “기독교 세계관에 의거한 교회 청소년 교육 커리큘럼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 대학원.
- 황희성 (2004). “멀티미디어 시대에서 바라보는 미래적 교회교육의 지향점.”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 최정훈 (2003).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있어서 기독교 세계관의 역할.” 석사학위논문.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 최형선 (2009). “초등학교 사이버 윤리 교육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접근.” 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 교육대학원.
- Greene, Albert E Jr.(1998). *Reclaiming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A Transforming Vision*. 현은자·정희영·황보영란 역(2000). 『기독교세계관으로 가르치기』. 서울: CUP.
- Holmes, Arthur F. (1985). *Contours of a world view studies in a Christian world view*. 이승구 역 (1991). 『기독교세계관』. 서울: 엠마오.
- Noebel, David A. (2006). *Understanding the times*. Colorado: Summit Press.
- Sire, James W. (1988). *The Universe Next Door*. 김현수 역 (1997).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 서울: IVP.
- Walsh, Brian J. & Middleton, J. Richard (1984). *The transforming vision: Shaping a Christian world view*. 황영철 역 (1996). 『그리스도인의 비전』. 서울: IVP.
- Wolters, Albert M. (1985).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양성만 역 (1992). 『창조·타락·구속』. 서울: IVP.

## ABSTRACT

### An Examining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Christian World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ristian worldview with their baptism and their periods of Christian life among the high school students of Korean churches

Hee Young Jeoung(Chongshin University)

Tae Kyoung Kwon(Cho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Christian world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ristian worldview with baptism and their periods of Christian life among the young people of Korean churches through a study on their Christian worldview, and to provide a suggestion as to how to establish a proper Christian worldview among the high school students of Korean churches.

This paper dealt with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is their Christian worldview like?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ristian worldview of the high school students of Korean churches and their baptism?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Christian world view and their periods of Christian life?

This study used a survey based on questions drawn from 5 scholars' frames on the Christian worldview, and the survey was composed of 29 questions: six questions on the general background of the surveyee and 23 questions on the Christian worldview. Data analysis was performed by using SPSS 12.0 and was analyzed according to frequency, t-test and one-way ANOV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hristian world view of Korean church high school students is positive approximately. Second, the Christian world view of high school students of Korean churches is

not related with their baptism. Third, the Christian world view of high school students of Korean churches is not related with their periods of Christian life. The suggestions of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prevent dualistic life styles, education on the continuation of the creation must constantly take place. Second, it is necessary to have an education that is applicable to real life instead of a theoretical one that is focused on doctrines. Third, an education that takes into account the fact that the surveyees are under the influence of the evolution theory and postmodernism thoughts is required. Fourth, education before and post baptism must be enforced and enlarged. Fifth, church education must be more effective than secular education and at the same time, needs to differentiate itself from the pattern of this world.

Key Words: a Christian worldview, dualism, baptism, postmodern thought